

동종 아킬레스 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단일 및 이중 다발 후방십자인대 보강술 후 임상적 결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윤경호 · 배대경 · 이정환* · 조승목 · 송상준

서 론

후방십자인대 파열 시 동종 아킬레스 건을 이용한 단일 다발 및 이중 다발 후방십자인대 보강술에서 이학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슬관절의 안정성과 기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38명의 환자 중 동측에 골절, 연골 손상, 다발성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재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반대쪽 슬관절에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16례의 슬관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일 다발군이 8례, 이중 다발군이 8례였고 수술 전, 후의 관절 운동 범위, 후방 전위 방사선 촬영, IKDC 평가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수술 시 평균 나이는 단일 다발군의 경우 27.5세, 이중 다발군의 경우 26.1세였고 수상 후 수술까지 시 간은 각각 12.4개월, 25.3개월, 평균 추시 기간은 13.1개월, 16.4개월이었다. 후방 전위 방사선 촬영상 건 측 슬관절에 비교해 후방 전위 차이는 단일 다발군은 술 전 평균 10.6 mm에서 술 후 평균 3.4 mm로 호전되었고 이중 다발군은 술 전 평균 11.1 mm에서 술 후 평균 2.9 mm로 호전되었다. 두 군 모두에서 수술 전 에 비해 수술 후 유의하게 후방 전위가 호전되었으나($p=0.011$, 0.011) 수술 전, 후 모두에서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p=0.556$). 관절 운동 범위도 단일 다발군에서 평균 137.5도, 이중 다발군에서 136.9도로 양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p=0.954$). 마지막 추시 시 IKDC 평가법 상 단일 다발군에서 정상이 3례(37.5%), 거의 정상이 4례(50%), 비정상이 1례(12.5%)였고 이중 다발군에서는 각각 4례(50%), 3례(37.5%), 1례(12.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000$).

결 론

후방십자인대 파열 시 단일 다발 보강술군과 이중 다발 보강술군 간의 수술 후 마지막 추시 시 임상적, 방사선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색인 단어: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보강술, 단일 다발, 이중 다발